

김치산업 육성·난독증 학생 지원 등 조례안 14건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공정관광 육성 조례도 제정 앞뒀

전남의 김치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도 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안 등이 잇따라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고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난독증 학생 지원, 공정관광 육성, 정책실명제 도입 등을 담은 조례안도 제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일(더불어민주당·해남1)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해당 조례안은 전남지사에게 김치산업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외의 시장·판로개척 지원 사업, 김치 사업자 김치 브랜드 제고를 위해 전남도 우수농산물 지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전남도 출자·출연기업의 경우, 품질인증 김치를 우선 구매

하도록 하고, 김치 사업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김치 사업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김치 품질향상, 김치 문화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며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하근(민주당·순천4)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난독증 학생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장애 및 학습 부진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따라 전남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난독증 학생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치료·상담 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조옥현(민주당·목포2)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하도록 했다. 당초 규정이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라고 위임한 것보다 명확하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범위를 정한 것이다.

전남도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관련한 공직자 실명을 공개하는 조례안도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근석(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상사업의 선정과 공표 등을 담고 있다. 전남도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공직자 실명 등을 공표하고 그 이력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강제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규정들을 구체화해 도민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신의준(민주당·완도2)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 이날 현재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농기원 지재권 실용화 협약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위해 지역 우수기술 이전 및 기술업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를 통해 양기관은 향후 ▲우수기술 및 수요기업 발굴 ▲개발기술 중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이전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경영 컨설팅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도내 수요기업에 이전 및 중개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전 기술의

상용적인 사업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이 지역 중소기업에게 적시적소에 이전되고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남도 기술이전 중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기술이전 67건을 중개하였고, 15개사에 이전기술 사업화를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어권 외국인 대상 전남도 랜선여행상품 운영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동남아, 구미주 등 영어권 국가의 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계적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전남 라이브 랜선 여행상품'을 8회 운영한다.

전남 라이브 랜선 여행상품은 빅터(Viator), 트래지(Trazy), 에어비앤비(Airbnb), 세계적 3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5일부터 8회에 걸쳐 전남의 매력 관광콘텐츠뿐만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등 교통 편의성을 소개한다.

이번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최근 TV 방영으로 유명해진 구례 쌍산재 등이 주무대. 지난 3~5월 시나리오 작성, 현지 촬영 등을 통해 여행사 누리집에 상품을 등록, 세심하게 이뤄졌다.

특히 현지 외국인의 전남 방문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전남의 숨겨진 전통시장과 먹거리, 골목투어 등을 소개하고, 개별이동 서비스(movv 등)를 이용해 여수·순천 관광지를 여행하도록 안내해 개별 관광도 가능하도록 꾸몄다.

또 이번 여행상품은 현장에서 실제 여행을 하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선사하도록 스튜디오 라이브 형태로 7회 운영하고, 마지막 8회차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해외여행사를 대상으로 B2B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B2B 온라인 박람회는 코로나 이후 전남 개발 및 패키지여행을 위한 호텔과 관광지 등을 하나로 묶는 상품을 소개해 전남 관광산업이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민명예기자, 농촌 일손 돕기 구슬땀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단(회장 박정숙)은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27일 강진 신전면에서 마늘 수확 작업에 나선데 이어 2일 순천 월등면에서 복숭아 봉지 씌우는 작업을 도왔다.

전남도 도민명예기자단(회장 박정숙)은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달 27일 강진 신전면에서 마늘 수확 작업에 나선데 이어 2일 순천 월등면에서 복숭아 봉지 씌우는 작업을 도왔다. 봉지 씌우기 작업은 병해충 예방과 과실 착색 관리를 통해 풍작을 일구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날 봉사활동으로 일손을 덜게 된 농가에서는 "요즘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 어려움이 많다"며 "명예기자들의 도움으로 부족한 일손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박정숙 회장은 "영농철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줘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도정 소식을 널리 알리면서 온정이 넘치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민 생활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도민명예기자단 129명은 시군의 크고 작은 소식을 도정 소식지인 '전남새마을'에 기고하는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일본에 2호 농수산물식품 판매장 개설

미야기현 센다이시 예스마트에 전남도가 지난 3일 일본 동북지역의 중심지인 미야기현청 소재지 센다이시의 대형마트 '예스마트(YES MART)'에 전남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 2호점을 개설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내 인터넷 한류드라마 등의 인기로 도쿄 신오쿠보에 개설한 전남도 일본 상설판매장 1호점에 이어, 이번 센다이에 2호점을 추가 개설해 농수산물식품 수출 판로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개소식에는 이창훈 주 센다이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비롯한 김정옥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미야기 지방본부 단장, 박성일 전남도 오사카사무소 부소장, 운영사인 에이산 관계자가 참석해 개설을 축하했다. 상설판매장 홍보를 위해 김치 담그기 행사와 다양한 시식용 나눔행사 등 홍보

판촉활동을 함께 진행해 지역 소비자의 관심을 한층 높였다.

일본에서 전남도 상설판매장 1호점을 개장한 후 삼진김치, 나래식품, 매일식품, 해도어묵, 미성영 어조합법인 등 전남 9개 기업이 김치류 7개 품목과 된장, 고추장, 어묵 등을 비롯해 26개 품목을 수출, 6개월 만에 6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올해 상설매장 1곳이 늘어 더 많은 매출이 기대된다. 상설판매장에서 전남의 친환경 농수산물품 50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으로, 개설에 필요한 제품은 지난달 24일 선적했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정정이미지를 가진 전남의 강점을 바탕으로 일본 주요 도시에 상설판매장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일본 시장 수출활로를 적극 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자전거길 22곳에 도로명주소 부여

전남도가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찾는 영산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등 22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그동안 강·하천에 인접한 자전거길은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위치 표시 한계로 위치 안내와 안전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도로명 부여로 자전거길이 인접한 건물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휴게시설 찾기와 이용자 간 위치 공유도 가능하게 됐다. 전국적으로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도로는 총 257곳이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상 2개 이상 사·도에 걸친 도

로는 행안부장관이,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도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내 도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을 부여한다.

전남도는 또 도로명이 부여된 자전거길 진출입로 등 주요 장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화장실, 휴게시설 등 인접 건물에는 건물 번호판을 설치해 정확한 위치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자전거 도로 주소 정보는 도로명주소 누리집(www.juso.go.kr)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